

‘새로운 김제 위한 담대한 여정’ 막 올랐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단길 길은 열어가면 되고, 없는 길은 만들어가면 길이 됩니다.
8만 김제시민이 함께하면 새로운 김제라는 길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정성주 김제시장 신년사 중 -

김제100년 초석 다지기 헌신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세계적인 경기 불황, 그리고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쌀값 폭락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김제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가능한 김제발전을 위해 현재의 가치향상과 미래 희망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먼저,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시책발굴과 전략적 대응으로 역대 최대 국가예산 1조원 시대 개막하며 2023년 1조54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고, 국가예산 단계 중 예산 반영이 가장 어렵다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립해양생명과학관 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1,434억원 중 2023년도분 44억4,000만원을 신규 반영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김제 도약의 새로운 원동력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 2023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에 선정, 2023년 70억원(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창농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속에서 불굴의 의지를 다지며 김제형 인구정책에 집중한 결과, 지속적인 감소하던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한해 575명이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다.

또한 김제시 최초로 대기업 (주)수산과 투자협약 체결 등 9개 기업이 3,939억원의 투자, 46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주)가자가 미국 7North社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일하게 김제나아가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외에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2022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우수 지자체 장관상 수상 등 23개 부문에서 김제의 위상을 한껏 높인 한 해였다.

2023년 올 한해도 경기침체 등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예상 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김제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데 헌신의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새로운 김제, 담대한 여정'의 시작인 2023년 계묘년 새해, 김제시가 내실있게 제시한 7대 역점시책을 살펴보고자 하자.

역점1 - 지속가능 산업성장도시

먼저, 전주권 혁신도시 주변 특성화 개발 및 동부권 베드타운 조성 등을 위한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용역을 추진해 도시의 내연 성장과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두고 도시공간의 구조 및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유일의 특장차 투자산도지구인 백구 특장차 단지에서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기반 시설 등을 구축하여 김제시를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지정된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1,712억원)에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견인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

더불어, 요촌동·신풍지구·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금동지구 새마을마을사업 등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원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과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쇠퇴하는 일차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역점2 -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미래를 꿈꾸는 활력 있는 경제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경제 활성화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기업 유치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김제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신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활기차고 희망찬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과 시민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관내 일자리 취업 알선과 맞춤형 정보제공을 하고 지속적인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 용역 추진

경제 발전 구심점 '김제상'의 설립

중자산업, 신성장 핵심으로 육성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 총력

어르신 섬김위원회 신설해

전국 제일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

축제재단 설립 축제 자생력 향상

대시민 포럼 통해 양방향 소통 강화



기까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역점6 -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무궁무진한 김제의 매력과 잠재력을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켜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김제축제재단을 설립해 축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김제시투어버스 운영과 김제문화재여행, 도심권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고객중심형 관광지 수용태세 강화 등을 통해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또한 공연, 전시, 체험 등 새로운 문화예술의 거점공간 역할을 수행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대을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사업,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등 새로운 체험형 관광자원을 조성하여 힐링과 활력을 더하는 도시를 조성한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명품 축제로 육성하고, 김제모악산축제는 모악산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를 강화하여 전북을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9월 1일부터 3일간 개최하는 제8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는 차질없이 추진한다.

역점4 - 준비하는 항만해양도시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김제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의 첫 시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024년 준공을 목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수변도시 내 새만금개발 및 새만금 개발공사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유치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추진해 해양도시의 미래를 열어간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인 국립 새만금수목원,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남북 3축도로 건설사업, 심포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월드체인 및 그린수소 거점화 등 특성화 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경7공구 방수제 및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결정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 해양성장 동력원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다.

역점5 -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교육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실패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전국 제일의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직속 어르신 섬김위원회를 신설하고 백세장수어르신 축하금 지원사업,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조성한다.

자활·자립 지원사업과 노후 불량 화장실 현대화사업, 최저 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지정된 나눔스타디 사업 김제시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 지평선학당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아이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인재양성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삼아약국 운영을 통해 야간 취약시간대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만취약지 분만부인과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가족센터 건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



역점7 -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민생기 시작과 함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각오로 시민의 생활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열린시장실, 시민 소통의 날,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과 백년김제 대시민 포럼 개최 등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한다.

특색있는 주민자치 기능강화 사업 추진과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내실있는 주민참여포인드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시장참여 뿐만 아니라 시민명예감사관제, 주민참여감독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찾아가는 현장 신속한 생활민원처리로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 예방 등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섬김행정 실현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 야간민원실 운영,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복 김제를 실현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계묘년(癸卯年) 새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의 자세로 한걸음씩은 새로움으로 지속 가능한 김제의 내일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새로운 김제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가슴에 담아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골강 합치게 나가겠다"면서 김제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제=락도태 기자